

/지역 단신/

### 화순경찰서 '해피 콜 서비스'



화순경찰서(서장 노병현)는 민원인 불편사항 점검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피 콜(Happy-Cal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피콜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요 대민 업무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전화 모니터링제도.

모니터링 내용은 ▲담당 경찰관의 친절도 ▲신속·정확성 ▲청렴도 ▲공정성 ▲고객만족도 등 5개 분야이다.

청문감사실 김경 경사는 "설문을 실시해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보성 복내지구대 교통사고 예방

보성경찰서 복내지구대(대장 김성수)는 피서철을 맞아 관내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교통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였다. 김성수 대장은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내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친절한 지리안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전자감응 상품감지장치 태그' 개발

순천대 지역혁신센터(RIC)(센터장 조규진)와 ㈜파루의 Printed RFID연구팀은 산학 공동연구로 '전자감응 상품감지장치(RF EAS) 태그'를 개발했다. 순천대 RIC와 ㈜파루가 공동 개발한 신기술은 전자감응를 이용해 단순히 인쇄하기만 하면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 영역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 고가의 기존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8비트의 정보 인식이 가능해 8비트의 경우 256개의 각기 다른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 도난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저가의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26일 제 10회 고창해풍고추축제

제 10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26일 고창 해리중학교 교정에서 열린다.

고창 해풍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행사는 고추품평회와 고추음식만들기, 및 고추 썰기 대회와 농악공연, 노래자랑, 체육행사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고창 해풍고추는 성장기에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두껍고 특유의 매콤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제철 축제위원장은 "해풍고추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해풍을 맞으면서 붉게 변해 맛과 향이 더욱 깊다"며 "고추재배농가의 구슬땀을 축제 현장에서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진원기자 jwkim@

## 광양商議 신설 움직임 거세다

### 지역 상공인들 '순천·광양상의' 사무국 개설 강력 반발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광양을 분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광양에 별도의 사무국을 개설하자 광양지역 상공인들이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광양지역 상공인에 따르면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4일 '광양지역 회원들에 대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광양을 대운상호저축은행 3층에 광양사무국을 개설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그러나 이번 사무국 개설이 광양상공회의소를 따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광양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광양상공회의소설립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1년여 동안 광양 분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대회를 준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며 "광양사무국 개설은 이 같은 광양 분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재 추진위원장은 "광양시 관내 기업체 수와 법인세액이 5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등 산업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어 광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상공회의소 설립이 절실했다"고 분리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동은 광양에서 하고, 소비는 순천에서 하는 현재의 행태로는 광양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광양 상공인들의 동의와 발기인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전남도에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조휴석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행사를 광양에서 개최하는 등 연간 회비 모금액 중 90%가량을 광양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분리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논의가 활발한 이때 상공회의소를 분리하는 것은 순천·광양 두 지역의 불이익만을 초래하며 지역정서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비 모금액의 65%가 광양지역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천과 광양 상공회의소가 분리될 경우 현재 순천회원들이 내는 35%의 회비만으로는 순천상공회의소가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리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조휴석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행사를 광양에서 개최하는 등 연간 회비 모금액 중 90%가량을 광양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분리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논의가 활발한 이때 상공회의소를 분리하는 것은 순천·광양 두 지역의 불이익만을 초래하며 지역정서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비 모금액의 65%가 광양지역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천과 광양 상공회의소가 분리될 경우 현재 순천회원들이 내는 35%의 회비만으로는 순천상공회의소가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리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 "화순 능주 복숭아가 최고"

복숭아 수확철을 맞아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도로변에 임시로 가게를 차려놓고 복숭아를 팔고 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능주산 황도 복숭아는 3.75kg에 1만원~2만원에 판매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폐교된 함평 철성초등학교

## 생태 전원펜션 탈바꿈

폐교된 시골 초등학교가 한 약사 부부의 노력으로 생태 전원펜션으로 탈바꿈됐다. <사진>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조성일(55)·이진숙(50)씨 부부는 지난 1999년 폐교됐던 함평군 대동면 철성초등학교를 매입, 오래전부터 꿈꾸던 전원생활의 꿈을 이뤘다.



조씨부부는 친환경적이면서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설계 및 실내 디자인을 직접 하는 등 곳곳에 정성을 들인 전원펜션 '들담에 속삭이는 햇살'로 변신시켰다. 이곳은 수십 종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조경이 잘되어 있고, 각종 꽃 100여 종이 사계절 피어 있으며, 잔디가 깔린 운동장 한 편에는 시원한 분수가, 나무 그늘엔 평상이 놓여 쉴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교실과 관사를 이용해 만든

황도방은 세미나실, 나비방, 돌담방, 어울림방 등 관광객의 인원과 편의에 맞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부지에 각종 새와 염소, 토끼를 길러 어린이 방문객들의 농촌생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씨 부부는 "방문객을 위해 운동장에 골프 퍼팅 연습장, 축구장, 탁구장, 각종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 322-3515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PC방 영업 허가 '오락가락'

### 고흥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같은 건물서 불허 했다가 2달 뒤 허가

고흥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가 동일 영업장에 대해 상반된 행정처분을 내려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4월 고흥군 고흥읍 남거리 650-3번지와 651-21번지에 1층 조립식 건물을 신축했던 김모씨는 650-3번지에 PC방 영업을 신청했으나 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건물위치가 상대적으로 정화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2개월 뒤인 지난 6월 동일건물인 651-21번지 명의로 또다시 PC방 영업을 신청,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건물 전체를 PC방으로 꾸미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건물에서 신청된 영업허가에 대해 불과 두달 사이에 정반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주와 심의위원들 간의 결탁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650-3번지에서의 불법영업행위를 군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군청계시관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고흥군청 문화예술 담당은 "2002년 2월부터 PC방이 자유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금지된 번지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흥교육청 관계자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업주에게 허가 난 번지에서만 영업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 무안 망운-현경간 도로 확장

무안군 망운면에서 현경면을 연결하는 도로(4.3km)가 4차선으로 확장돼 17일 개통됐다. 지난 2002년 12월 착공된 망운-현경간 도로 확장공사에는 총 4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운행시간이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 지자체·의회·유치위원회 등 여수 박람회 유치 공동 노력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지자체단체와 의회, 유치위원회 등 각계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2012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정찬웅 상임부위원장 등 중앙유치위 관계자들과 전시 관련 전문가 등 10명은 이를

일정으로 17일 여수를 방문, 박람회 예정지를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박람회장의 적정규모 및 경계선 설정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여수-순천 국도17호선, 전라선 철도개량화 사업, 화양지구 관광개발 사업

등 박람회 개최 예정지 인근 사회간접자본(SOC)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세계적 모델 업체인 EML(Elite Model Look) 한국지사사와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의외 의장단은 1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 박람회 유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박람회 유치를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 해조류 청각 대량양식 길 열렸다

### 인공 채묘 기술

### 양식 산업현장에 적용

해조류인 청각의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 완도군 약산면 담목어촌계에서 완도 해양수산사무소와 공동으로 좌담회를 열고 청각의 완전양식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사랑방좌담회에서는 해조류

연구센터가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중인 '녹조류 청각의 대량생산 및 양식기술개발'과제 중 청각 인공 채묘 기술을 양식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해조류연구센터 백재민 센터장은 "올해말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현장에 접목하게 되면 청각이 해조류의 틈새 상품으로 어민들의 어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 장성군, 외부 공모 채용

장성군은 신활력사업인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1명)를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1~2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군은 이를 전후해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 제안공모를 조달청에 의뢰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에 국비 60억원과 민자를 유치했다"며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캐릭터사업을 발판으로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OST음원개발, 게임 등에 집중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oo@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실 그대로

#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고급재료, 맛있는 음식!

**유수향 관동호텔 이리조트**